

평생학습도시 관련변인의 사회자본 영향에 관한 연구: 안동시와 영천시 사례

김 남 선* · 안 현 숙**

대구대학교 지역사회개발·복지학과* · 대구대학교 지역사회개발·복지학과**

Factors Influencing Social Capital through the Enhancement of a Lifelong Learning City: Youngcheon and Andong City Case Study

Kim, Nam Sun* · Ahn, Hyun Sook**

Dept. of Community Development* · Welfare, The Univ. of Daegu**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factors influencing social capital within a lifelong learning city as discussed in the Youngcheon and Andong City case study. Data was collected from 205 learners in Andong City and 194 learners in Youngchun City. The data was then analyzed by the SPSS WIN 12.0 program. The statistical techniques used for this study were frequency, percentile, t-test, and regression.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o begin with, the learners in LLC were more likely to have positive attitudes toward the construction of a lifelong learning city. Second, the learners in LLC were more likely to have social capital including norm and network. Furthermore, the learning opportunity had a positive effect in increasing the trust between learners. Learning support and support systems also had influence in increasing the social network between learners. Finally, support systems had a positive effect in improving the norm between learners.

Key words: lifelong learning, lifelong learning city, social capital

I. 서론

지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Drucker(1999)는 21세기 지식근로자가 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요건중 하나로써 “평생을 지속적으로 배우기”를 권장하였다. 그리고, 영국의 교육·고용부 장관

Blunkett은 지역사회 스스로가 학습자원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일에 참여하는 것은 학습시대의 성공을 위한 핵심요인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학습을 개인, 가족,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국가전체를 위한 변영과 기회의 열쇠라고 하면서 학습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DfES 1998).

본 연구는 2004년도 대구대학교 연구지원비에 의해 수행된 것임.

접수일: 2006년 3월 20일 채택일: 2006년 6월 1일

Corresponding Author: Kim, Nam Sun, Tel: 053-850-6346

E-mail: namshun@daegu.ac.kr

1970년대 OECD는 캐나다의 Edmonton, 유럽의 Gothenburg, Vienna, Edinburg, 일본의 Kakegawa, 호주의 Adelaide, 미국의 Pittsburg 등 7개 도시로 이루어진 '교육도시'(Educating Cities)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재정 지원한 이래 학습도시, 학습지역 만들기 운동이 계속해서 확대되어오고 있다. 2000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6개국 175개 도시가 평생학습도시 연합인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Educating Cities를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1979년 가케가와시가 세계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하고, 조성사업을 벌인 지 30년만에 140여 개의 도시가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하여 이 사업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운동은 1992년 Gothenburg시에서 개최된 OECD 회의가 새로운 도화선이 되어 영국, 스페인, 호주, 캐나다, 미국, 남미, 아프리카, 일본 등 전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이희수 2004).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3월 9일 광명시가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한 이래,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1년부터 평생학습도시를 선정하여 2005년 말 현재 33개 자치단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다.

평생학습도시의 발전과 함께 20세기 말, 사회과학 전 영역에 걸쳐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사회자본은 사람들의 관계 구조 속에 있다(Portes 1998). 사회자본은 사람들의 관계 내에서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되며, 생산성을 증가시켜준다. 이러한 사회자본은 사람들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 규범, 신뢰, 네트워크, '관계자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고 있다.

평생학습도시는 사회자본형성의 인큐베이터이다. 학습도시는 경제적 재생을 넘어 사회적 재생이라는 맥락을 갖는다(이희수 2002). 평생학습도시는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이 가능해지는 지역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학습사회에서 학습을 통해 지역의 사회자본을 증대시켜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한 전략이 바로 평생학습도시인 것이다.

이처럼 평생학습도시는 사회자본을 위한 그리

고 사회자본을 통한 평생교육이 활성화 되는 장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평생학습도시의 정책적 연구(이희수 2004)나 평생학습도시의 추진 모델에 관한 연구(김신일 2004)을 두고 있다.

따라서 평생학습도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평생학습도시와 사회자본과의

관계를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자본은 지역경제의 원동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도시가 지향하는 지역공동체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구현하기 위해 본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의 중요한 목적은 첫째, 평생학습도시와 비평생학습도시와의 사회자본정도를 비교분석한다. 둘째, 평생학습도시와 비평생학습도시와의 사회자본관련변수(신뢰, 규범, 네트워크)의 정도를 비교분석한다. 셋째, 평생학습도시 및 비평생학습도시관련변수(학습기회, 학습센터, 학습지원, 지원체계)의 사회자본 각 변인의 영향정도를 비교분석한다.

II. 이론탐색 및 선행연구의 고찰

1. 평생학습도시 관련 변인

평생학습도시는 학습도시(learning city), 학습공동체(learning community), 학습지역(learning region), 학습마을(learning town)이라는 용어로 쓰이고 있으며, 그 의미하는 바는 동일하다.

Longworth(1999)는 평생학습도시란 기본적인 번영, 사회안정, 개인의 행복에 있어서 학습이 열쇠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도시로서 모든 시민의 완전한 인간적 잠재력을 개발하는데 인적자원, 물적자원, 금융자원을 동원하는 도시라고 정의하였다.

신경희(2002)는 평생학습도시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노동인력 양성, 시민사회 시민으로서의 자질, 윤리가치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개인적 능력, 공동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간의 관계기술 등을 익히는 새로운 유형의 인적 자본 개발과 사회자본 구축을 목표로 하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이와같이 평생학습도시

는 사회자본증대를 통해 지역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평생학습도시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첫째, 평생학습을 통한 인적 자본의 개발을 위해서이다.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은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필요한 지식, 가치, 기술 그리고 이해력을 갖추도록 자극하고 힘을 실어주며, 그들에게 자신감, 창의성 그리고 맡은 역할과 환경 안에서 기쁨을 맛보도록 끊임없이 지원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DfES 1998). 지역사회 주민은 평생학습을 통해 급변하는 시대의 지식과 정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며, 지역사회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역량을 키워준다.

둘째, 평생학습을 통한 사회자본의 개발을 위해서이다. 학습은 개인과 집단들이 상호작용할 때 일어나는 ‘사회적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자본은 학습과정으로서의 상호작용과 그들 학습의 결과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자본은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의 과정을 매끄럽게 하는 유효성이 되는 것이다(Kilpatrick et al. 1998; 구혜정 2002). 지역사회 주민은 학습을 통해서 신뢰를

얻어나가고, 스스로 지역사회의 규범을 형성하며, 서로 네트워킹을 통하여 사회자본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평생학습도시가 지역 주민의 인적자본을 개발하기 위해서, 또한 지역사회의 사회자본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개인에게는 개인의 지식, 능력,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지역사회 통합과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평생학습도시에 관련된 변수를 보면(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 2005, 인천광역시 연수구 2005, 안동시 2004), 첫째, 지역주민들에게 평생학습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는 분위기, 둘째, 평생학습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평생학습센터, 셋째, 평생학습이 제대로 전개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또는 지역민간단체의 평생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 넷째, 평생학습센터가 평생학습을 보다 체계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마련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평생학습도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된 변인을 보면 다음 Figure 1과 같다.

평생학습도시 관련 변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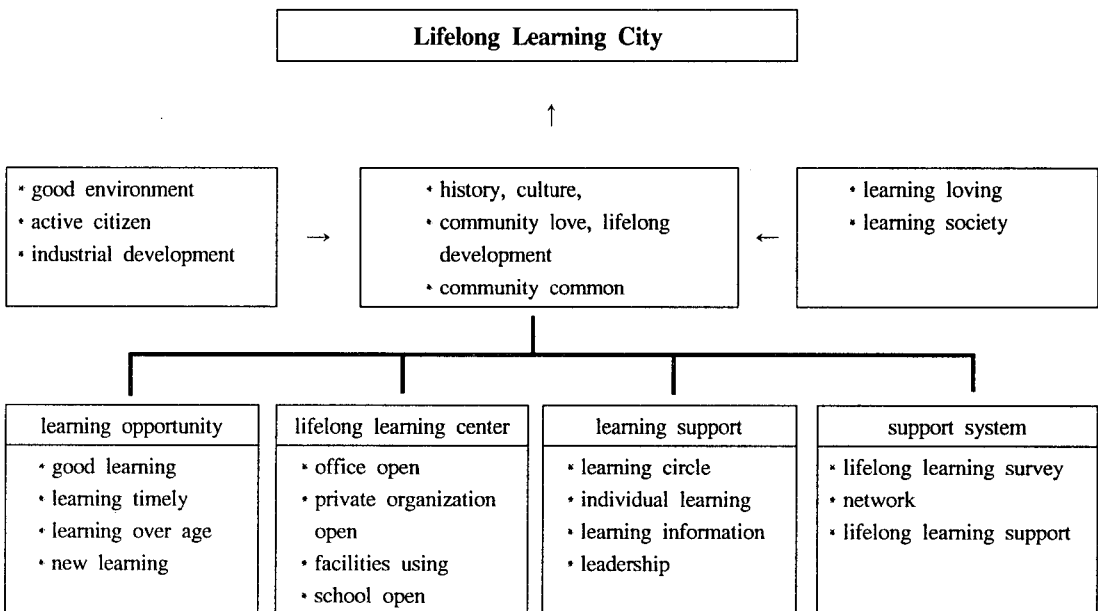


Figure 1. A Model of lifelong learning city

첫째, 평생에 걸친 학습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먼저 충실한 학습기회의 제공을 위한 평생학습의 기반을 구축하여야 하고,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각 시기에서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평생학습 거점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평생학습 관련 시설을 구축하고, 정비, 활용하며, 학교를 개방하여 평생학습을 실시하도록 하고, 공공시설 및 설비 등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민간 및 산업 시설의 활용도 촉진해야 한다.

셋째, 학습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지역주민의 평생학습활동 지원을 위해 학습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습동아리를 지원하며, 지역의 지도자를 발굴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지역의 지도자를 확보해야 한다.

넷째, 평생학습 추진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평생학습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추진 지원체계를 조기하고, 평생학습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평생학습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이처럼 평생학습도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평생학습기회의 제공, 평생학습거점 만들기, 학습활동지원, 지원추진체제 구축과 같은 과업을 수행해야 함을 알 수 있다.

2. 사회자본 하위변수 선행연구 고찰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이 사회자본에 대한 개념소개와 사회자본 개념이 갖는 함의를 논의하고 있는 시론적 연구이다. 국내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회자본 연구를 실증적으로 접근한 박희봉과 김명환(2000), 유재원 등 (2000)의 선행연구논문과 외국학자의 선행연구내용을 중심으로 사회자본 관련 하위변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희봉과 김명환은 사회자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 측정지표로 규범(우리 지역주민은 법을 잘 지킨다 외 6개 항목), 신뢰(나는 우리 지역사회 이웃을 신뢰한다 외 3개 항목), 집단내 협력(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출신지역에 따라 차별을 하지 않는다 외 3개 항목), 정보공유(우리 지역주민들은 지역사회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외 4개 항목)라는 네 가지 지표를 선정하여 개인의 태도를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고 있다.

유재원(2000)의 연구에서는 성남, 부천, 진주, 평택, 청주시 시민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결사체 참여가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이에 사회자본으로서 정치참여, 정치관심, 정치지식, 정치효능, 시민적 의무감, 사회신뢰, 관용성을 보았다.

소진광(2004)은 2002년 성남시에서 사회자본을 조사에서 지역사회 공동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성원간 신뢰를 제고하여야 하고, 지역사회 공동의 목표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역사회의 신뢰기반, 네트워크, 사회적 규범, 참여기회 및 이타적 성향, 포용력 등 다섯 가지로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소진광(2004)은 사회자본은 첫째, 공동기반을 확인할 수 있는 신뢰, 둘째,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기 위한 참여, 셋째, 이웃과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연계망(네트워크), 넷째, 자원을 동원하고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와 규범, 다섯째,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타적 성향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사회자본을 측정하는 개념요소들을 설명하였다.

Bullen과 Onyx(1998)이 최종적으로 도출한 사회자본개념요소는 모두 지역사회 구성원의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상호조정과 협동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하여 이들은 최종적으로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개념요소들로서 지역사회참여, 사회에서의 적극적 활동력, 신뢰와 안전의 감지, 이웃관계, 가족 및 친구관계, 다양성의 포용력, 삶의 가치, 작업연계를 보았다. 하지만 Bullen과 Onyx(1997)의 사회자본 지표는 실증연구를 통해 도출된 것이 아니라 사회자본의 의미만으로 사회자본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소진광(2004)은 사회자본을 각각 다른 여섯 가지의 차원으로 분류하고 이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첫째, 사회자본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네트워크, 둘째, 신뢰와 결속력, 셋째, 집단행동과 협력, 넷째, 정보와 통신, 다섯째, 사회적 응집력(social cohesion)과 포섭력(inclusion), 마지막으로 권력획득(empowerment)과

Table 1. Previous studies of social capital

Researchers	Subfactors of Social Capital
Park et al.(2000)	Norm, trust, cooperation between group, information
Yoo (2000)	Political participation, interest, knowledge, effect, citizen duty, social trust
Won (2002)	Trust, norm, network
So (2003)	Community trust, network, social norm, participatory opportunity
So (2004)	Trust, participation, network, institute and norm
Bullen and Onyx(1997)	Community participation, positive action, security, neighbourhood, family and friend, life value
Grootaert, et al.(2003)	Organization and network of social capital, trust and cooperation, group behavior, information, social cooperation.

정치적 행동을 다루고 있다.

이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Table 1과 같다.

국내외의 사회자본 관련 선행연구내용을 분석하여 나타난 Table 1과 같이 사회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변수로는 크게 신뢰, 규범 및 네트워크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뢰, 규범 및 네트워크를 사회자본의 관련요인으로 설정하여 연구하였다.

3. 평생학습도시와 사회자본

평생학습도시는 학습을 통한 지역사회개발이고, 학습은 바람직한 사회경제적 결과를 생기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자본(지식 자원과 정체성 자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구혜정 2002).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이 상호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평생학습정책을 통한 사회자본 형성도 중요시 되고 있다. 그리고 평생학습정책의 축이 국가에서 지방정부로 넘어가면서 평생학습도시개념이 등장하였고, 평생학습도시정책에서는 사회자본이 더 강조되는 추세에 있다(신경희 2002).

정부가 가장 직접적으로 사회자본을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은 교육이다. 교육기관은 학습자에게 사회적 규칙과 규범을 가르침으로써 사회자본을 전수한다(김남선·김은영 2002). 신경희(2002)도 또한 현대의 지식기반사회에서 교육이 촉매가 되는 평생학습도시 개념이 가장 강력한 시민사회

사회자본 창출의 근원이라고 하였다. 즉 학습이 바로 사회자본을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요소인 것이다.

학습도시는 이 시대의 양대 자본인 인적자본과 사회자본 형성의 인큐베이터이다(이희수 2003). 인적자원은 개인의 지속적 학습 참여라는 투자를 통해서만 개발되고 양성된다. 이러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개인의 합리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적 관계나 지역의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 즉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이 상호강화하는 관계에 있다는 연구와 인식이 확산되면서 사회자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지방정부는 평생학습을 통한 주민의 만족감, 사회통합에 관심을 가지면서 평생학습도시이념에 사회자본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평생학습정책이 앞선 일본이나 영국, 그리고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한 도시정부의 평생학습정책은 평생학습을 통해 인적 자본과 사회자본을 동시에 양성하는 통합적 차원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교육은 일반적으로 인적 자본의 양성을 뜻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1980년대 말 사회자본이 인적 자본에 영향을 미치며, 상호강화하는 측면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평생학습을 강조하는 평생학습도시와 사회자본과의 관계는 더욱 밀접화 되고 있다.

III. 연구의 방법

1. 연구의 모집단 및 표본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현장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및 현장조사기간은 2005년 10월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시하였다. 연구의 모집단 및 표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모집단은 경상북도 안동시 평생교육기관학습자(어떤 어떤 학습기관인지 기술요망?)와 영천시 평생교육기관(어떤 어떤 학습기관인지 기술요망?) 학습자이다. 둘째, 연구의 표본은 비확률표집방법인 임의표출방법을 적용하여 평생학습도시인 안동시에 있는 평생학습기관 학습자 250명, 비평생학습도시인 영천시에 있는 평생교육기관 학습자 250명 추출하였다.

2. 조사도구 작성 및 변인설정

조사도구 및 변인은 관련선행연구와 문헌을 근거로 하여 질문지로 구성하였다. 질문서는 사전조사(pre-test)를 통하여 질문지의 타당도를 높여 최종 작성되었다. 질문서의 크롬바 알파 계수는 0.84로 나타났다. 질문서 변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문서의 전체 문항수는 3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여기에는 개인특성변수 6문항, 독립변수인 평생학습도시 관련 17문항(평생학습기회제공; 4문항, 평생학습거점시설의 확충; 5문항, 학

습활동의 지원; 4문항, 지원추진체계구축;4문항 등)과 종속변수인 사회자본 관련 13문항(신뢰; 5문항, 규범; 4문항, 네트워크; 4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3. 자료수집 및 통계분석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생학습도시인 안동시 표본 250명중 220명(88%)이 응답하였으며 응답자 중 본 연구목적에 부합되는 205명(93.1%)의 질문지를 통계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비평생학습도시인 영천시는 표본 250명중 215명(86%)이 응답하였으며 응답자 중 본 연구목적에 부합되는 194명(90.2%)의 질문지를 통계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적용된 통계 방법은 조사대상자의 개인특성변인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으며, 평생학습도시와 비평생학습도시간의 사회자본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t-test를 적용하였고, 평생학습도시 관련변인이 사회자본 및 사회자본 하위변인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의 모형

본 연구수행의 모형을 제시하면 Figure 2와 같다.

평생학습도시관련변인과 사회자본관련변인과의 관계를 모형화하면 Figure 3과 같다.

Figure 2. Model 1: Differences between LLC and NL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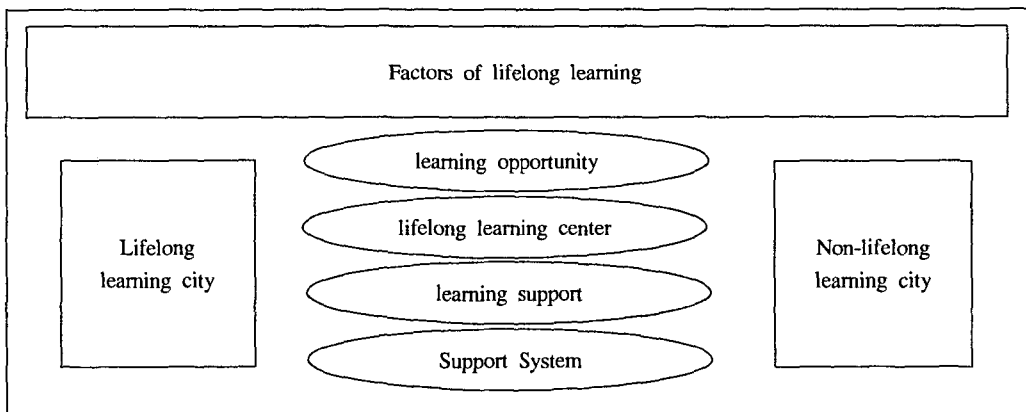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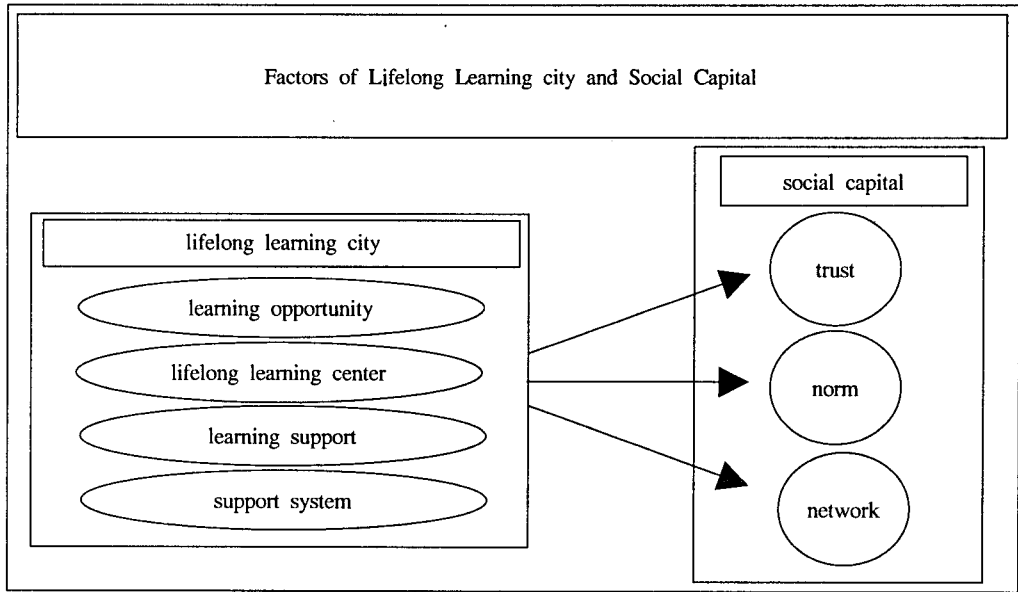


Figure 3. Model 2: Factors influencing social capital



IV. 연구내용의 분석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의 성별, 결혼여부, 연령, 최종학력,

월평균 가구소득, 거주형태 등의 개인특성을 요약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성별분포는 여성이 328명(82.2%)으로 남성의 71명(17.8%)보다 월등히 많은 응답

Table 2.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Division	Items	Andong city		Youngchun city		Total	
		N	%	N	%	N	%
Gender	Male	53	25.9	18	9.3	71	17.8
	Female	152	74.1	176	90.7	328	82.2
	Total	205	100.0	194	100.0	399	100.0
Married	Unmarried	22	10.7	19	9.8	41	10.3
	Married	183	89.3	175	90.2	358	89.7
	Total	205	100.0	194	100.0	399	100.0
Age	20~29 years	13	6.3	17	8.8	30	7.5
	30~39 years	65	31.7	81	41.8	146	36.6
	40~49 years	44	21.5	54	27.8	98	24.6
	50~59 years	43	21.0	19	9.8	62	15.5
	60~69 years	28	13.7	15	7.7	43	10.8
	Over 70 years	12	5.9	8	4.1	20	5.0
	Total	205	100.0	194	100.0	399	100.0
Education	Under elementary school	2	1.0	10	5.2	12	3.0
	Middle school	20	9.8	14	7.2	34	8.5
	High school	90	43.9	105	54.1	195	48.9
	University	90	43.9	58	29.9	148	37.1
	Over graduate school	3	1.5	7	3.6	10	2.5
	Total	205	100.0	194	100.0	399	100.0
Monthly average income (Won)	Under100 million	17	8.3	30	15.5	47	11.8
	101~200 million	67	32.7	63	32.5	130	32.6
	201~300 million	67	32.7	58	29.9	125	31.3
	301~400 million	29	14.1	33	17.0	62	15.5
	Over 401 million	25	12.2	10	5.2	35	8.8
	Total	205	100.0	194	100.0	399	100.0

를을 보이고 있다. 평생학습도시는 여성 152명(74.1%), 남성 53명(25.9%)이고, 비평생학습도시의 경우 여성이 176명(90.7%), 남성이 18명(9.3%)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를 살펴보면, 기혼이 358명(89.7%), 미혼이 41명(10.3%)로 나타났다. 나타났다. 연령분포를 살펴본 결과, 전체 대상자 중 30대가 146명(36.6%)로 가장 많았다. 최종학력을 살펴보면, 고등학교졸업이 195명(48.9%)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교졸업이 148명(37.1%), 중학교졸업이 34명(8.5%), 초등학교졸업 이하가 12명(3.0%), 대학원졸업 이상이 10명(2.5%)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100만원~200만원 미만인 130명(32.6%)으로 가장 많으며, 200만원~300만원 미만인 125명(31.3%), 300~400만원 미만인 62명(15.5%), 100만원 미만인 47명(11.8%), 400만원 이상이 35명(8.8%) 순으로 나타났다.

2. 연구내용의 분석

1) 평생학습도시 여부에 따른 사회자본

평생학습도시 여부에 따른 전체 사회자본정도는 Table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하였다. 즉, 평생학습도시와 비평생학습도시간에 사회자본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과 같이 평생학습도시는 사회자본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사회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관련변수 즉 신뢰, 규범 및 네트워크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평생학습도시 여부에 따른 전체 사회자본 관련변인 중 신뢰는 Table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평생학습도시와 비평생학습도시간에 신뢰정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학습도시 여부에 따른 전체 사회자본 관련변인 중 규범은 Table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하였다. 즉, 평생학습도시와 비평생학습도시간에 규범정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표에서와 같이 평생학습도시는 비평생학습도시보다 규범의 증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평생학습도시 여부에 따른 사회자본 관련변인 중 네트워크는 Table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하였다. 즉, 평생학습도시와 비평생학습도시간에 네트워크정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평생학습도시 관련 변인에 따른 사회자본 영향 요인 분석

평생학습도시관련 각 변인 즉 평생학습기회의 제공, 평생학습센터, 학습활동의 지원, 그리고 지원추진체제의 구축 등의 변인이 사회자본의 하위 변인인 신뢰, 규범 및 네트워크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평생학습도시 관

Table 3. Mean differences of social capital between LLC and NLC (N=399)

Dependent factor	Independent factors	N	Mean	S.D	t-value	p
Social capital (trust+norm+network)	lifelong learning city	205	3.20	.50	3.43	.001
	non-lifelong learning city	194	3.03	.51		
Trust	lifelong learning city	205	3.42	.55	1.58	.125
	non-lifelong learning city	194	3.34	.51		
Norm	lifelong learning city	205	3.10	.63	3.48	.001
	non-lifelong learning city	194	2.87	.68		
Network	lifelong learning city	205	3.09	.59	3.49	.001
	non-lifelong learning city	194	2.87	.62		

1=not agree at all, 5=very agree

관련변인별 신뢰자본과의 분석결과를 Table 4와 같다.

평생학습도시 관련변인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설명력이 12.4%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평생학습도시 관련변인은 신뢰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중 평생학습기회의 제공변인은 $p < 0.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신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평생학습도시 관련변인과 규범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평생학습도시 관련변인의 규범에 미치는 영향은 설명력이 17.4%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Table 4). 전체적으로 평생학습도시 관련변인은 규범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중 지원체제 구축변인은 $p < 0.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규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평생학습도시 관련변인별 네트워크와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평생학습도시 관련변인의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은 설명력이 34.4%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평생학습도시 관련변인은 네트워크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중 학습활동의 지원변인과 지원추진체제 구축변인은 $p < 0.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네트워크증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평생학습도시 관련 각 변인과 사회자본 관련 각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평생학습도시 관련 각 변인별로 사회자본 관련변인에 미치는 영

향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자본의 세 변수 중 설명력 순으로 보면 네트워크 34.4%이며, 규범 17.4%, 신뢰 12.4% 등으로 나타났다.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습기회의 제공이며, 규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지원추진체제의 구축이고,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습활동의 지원과 지원추진체제의 구축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평생학습도시 관련변수와 사회자본 관련 변수와의 관계를 구명함으로써 평생학습도시 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데 그 중요한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생학습도시와 비평생학습도시를 사례로 하여 비교분석함으로써 평생학습도시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요약 및 결론을 내려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평생학습도시와 비평생학습도시의 사회자본정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평생학습도시의 사회자본이 비평생학습도시보다 높게 나타나 평생학습도시 정책이 성공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사회자본의 신뢰정도를 보면 평생학습도시(3.42), 비평생학습도시(3.34)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사회자본 규범정도를 보면 평생학습도시(3.10), 비평생학습도시(2.87)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자본 네트워크를 보면 평생학습도시

Table 4. Multiple regression results with all 4 independent variables (N=399)

	Social Capital			Trust			Norm			Network		
	β	t	p	β	t	p	β	t	p	β	t	p
Learning Opportunity				.161	2.012	.046	.076	.984	.326	.035	.512	.609
Learning Center				.181	1.864	.064	.104	1.102	.272	.111	1.322	.188
Learning Support				.039	.407	.685	.164	1.749	.082	.298	3.574	.000
Support System				.041	.481	.631	.167	2.000	.047	.245	3.299	.001
R^2				.124			.174			.344		
F				7.052			3.543			26.172		
P				.000			.000			.000		

(3.09), 비평생학습도시(2.87)로 나타났다.

평생학습도시 각 변인과 사회자본 각 변인과의 관계를 보면, 전체적으로 평생학습도시 관련 변인은 사회자본중대에 관련된 변인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평생학습도시 발전을 위해서 평생학습도시 관련 변수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학습기회의 제공이 학습자간의 신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은 신뢰 형성을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다양한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때 신뢰가 형성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둘째, 지원체제 구축이 학습자간의 규범중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은 학습자간의 규범형성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관련 기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평생학습기관간 연계협력을 증진시키며, 평생학습에 대한 조사, 연구 활동을 활성화 시켜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학습활동지원과 지원체제구축이 네트워크를 증대시키고 있다. 이것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언론을 통한 프로그램 홍보, 학습동아리활동에 대한 지원, 지역의 지도자 양성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이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평생학습기관에 대해서 지원하며, 평생학습에 대한 조사, 연구 활동을 하고, 평생학습기관간 연계협력이 이루어 질 때, 네트워크가 형성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 사업이 평생학습 도시 정책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무리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이 느끼지 못한다면 그러한 평생교육은 실용성이 없다. 둘째, 실증적으로 평생학습도시의 사회자본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비록 횡단적 연구인 비교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였으나, 평생학습도시의 사회자본이 비평생학습도시 사회자본보다 더 크다는 것은 평생학습도시가 사회자본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평생학습도시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서는 첫째, 평생학습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누구든지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평생교육은 특정 집단의 소유물이 아니다. 평생학습도시를 위해서는 지역의 모든 주민이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지역주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시간대를 확대 해야 한다. 어디에서나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습자들이 평생학습기관을 선택하는 이유로서 자신이 사는 곳과의 거리가 또한 중요한 이유로 자리 잡고 있다. 둘째, 학습활동 지원을 체계화해야 한다. 학습활동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각종 언론을 활용해야 한다. 지역의 각종 언론들과 연계하여, 평생학습프로그램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학습동아리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학습동아리 활동은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취미·교양·봉사로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학습동아리 활동을 하는 등 그 구성원들이 학습의 일정 기간 동안은 동아리 활동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직과 규모가 체계적이며 효과적이다. 셋째, 지원추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지원추진체제 구축을 위해서 지역의 평생학습 추진 체제는 지역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평생학습기관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 지역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평생학습기관들이 존재한다. 지역의 평생학습 추진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의 평생학습기관들에 대한 지원을 넓혀야 한다. 지역의 평생학습기관간의 연계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의 평생교육기관들은 다양한 종류의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각 기관들마다 특색이 있는 프로그램보다는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인기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로 인해 기관들 간에 보이지 않는 경쟁관계를 이루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평생학습 추진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의 모든 평생학습기관들이 서로 연계 협력하여, 기관의 특성과 이념을 반영하는 특색이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기관들 간에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제한된 1개의 평생학습도시와 1개의 비평생학습도시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한계가 있어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결론을 보다 입증하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사례를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구혜정(2002) 전환기의 평생교육: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만남. 한국교육학연구 8(2), 275-296.
- 김남선(2003) 지역사회교육론. 서울: 형설출판사.
- 김남선(2005) 평생학습도시론. 대구: 대구대학교출판부.
- 김남선·김은영(2002) 리더십과 지역사회조직의 사회자본. 지역사회개발학술지(한국국제지역사회개발학술지) 12(2), 1-24.
- 김신일(2004)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모형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10(3), 1-30.
- 박순미(2000) 조직의 사회적 자본이 새로운 지적 자본 창출에 미치는 영향. 인적자원개발 연구 2(1), 171-203.
- 박희봉·김명환(2000) 우리 나라 지역의 사회자본 증진에 관한 연구 : 사회자본 측정과 분석을 위한 시도. 한국정치학회보 34(4), 219-237.
- 박희봉·김명환(2000) 지역사회 사회자본과 거버넌스 능력: 서울 서초구와 경기 포천군 주민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4(4), 119-137.
- 서순탁(2002) 연구논문: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한 도시 계획의 역할과 과제: 접근방법과 정책적 함의. 국토연구 33(1), 73-87.
- 소진광(2004) 연구논문: 사회적 자본의 측정지표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6(1), 89-117.
- 송경재(2004) 일반논문: 사회적 자본과 네트워크: 조직구조를 중심으로. 사회 이론 25(0), 251-282.
- 신경희(2002) 평생학습을 통한 서울시 사회적 자본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안동시(2004) 안동시 평생학습도시 조성방안. 안동시
- 양홍권(2003)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있어서 컴퓨터 통신망과 사이버교육의 역할. e-Learning학술연구 2(1), 71-86.
- 유재원(2000) 사회자본과 자발적 결사체. 한국정책학회보 9(3), 23-43.
- 이희수(2002) 평생학습도시/마을 조성 정책 동향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19-89. 12월 5일, 서울: 한국교원총연합회 대강당
- 이희수(2003)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소크라테스 변명. 평생교육학연구 9(2), 249-275.
- 이희수(2004) OECD 학습도시 정책동향 비교분석. 비교교육연구 14(2), 143-163.
- 인천광역시 연구(2005) 학습강국으로 가는 평생학습도시 성공전략. 전국평생학습도시 심포지엄.
- 전은경·김성수(2000) 논문: 지역사회개발과 사회교육을 위한 개발커뮤니케이션 접근. 한국농촌지도학회지 7(2), 359-376.
- 정득진(2000) 지역사회개발과 사회교육의 공통점과 차이점. 정지웅(편) 지역사회개발과 사회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2005)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2005년 제1차 평생교육포럼. 한국교육개발원.
- 한승희(2001) 평생학습과 학습생태계. 서울: 학지사.
- 한승희(2003) 평생학습도시의 비전, 40-59, 부천시청, 부천시, 평생학습도시로 가는 길, 부천: 부천시청.
- 허혜숙(2003) 평생학습차원의 성인학습동아리 사례 분석.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Bourdieu P(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Richardson,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Westport, CT: Greenwood Press.
- Bourdieu P(1988)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Bullen P, Onyx J(1998) Measuring Social Capital in Five Communities in NSW. Centre for Australian Community Organisation and Management(CACOM).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 Coleman JS(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 DfES(1998) Practice Progress and Value - Learning Communities: Asseing the value they add.
- Fukugyma F(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 Hutchins MR(1968) The Learning Society,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Publishers.
- Kilpatrick K, Falk I(1998) Groups of Groups: The role of group in building social capital. the CRLRA Discussion Paper.
- Krishna A(2000) Creating and Harnessing social capital. in Dasgupta and Serageldin(eds), 71-93
- Larry D(1999) Developing Democracy: Toward Consolidation(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Lee W(1997) Grassroots Participatory Research, Community Partnership Center.
- Longworth, N(1999) Making Life Learning Work: Learning Cities for a Learning Century, Kogan Page, London.
- Newton K(1999)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in Mordern Europe, in Jan W. van Deth, Marco

- Maraffi, Kenneth Newton and Paul F. Whiteley(eds). Social Capital and European Democracy, London: Routedledge.
- OECD(2001) The Well-Being of Nations: the role of human and social capital, OECD, Paris.
- Peter D(1993) Post-Capitalist Society,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s.
- Peter D(1999) 21세기 지식경영. (이재규 역).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 Portes A(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Annual 24(1), 1-24.
- Putnam R(1993a)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utnam R(1993b)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13, 35-42.
- Putnam RD(1995a)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 65-78.
- Putnam RD(1995b) Tuning in, Tuning out: The Strange Disappearance of Social Capital in America. PS: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 664-683.
- Putnam R(2000)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안청시 외 역). 서울: 박영사.
- Serageldin I, Christriaann G(2000) Defining Social Capital: An Integrating View, In Partha Dasgupta & Ismail Seragedin, eds., Social Capital: A Multifaceted Perspective. 40-58. Vashington, D.C.: The World Bank.
- Uslaner EM(2000) Trust, Democracy, and Governance. A Resource paper presented at the Social capital Initiative(Nov. 10. 2000). sponsored by the World Bank and Michigan State University.